내소사, 지역 군법당 활성화 나서

공군 호국 의상암 이어 부안 1대대 법회 개최

부안 내소사가 지역 군법당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내소사(주지 진성)는 지난 봄부터 부안 공군 호국 의상암의 법당을 지원하고 대중스님이 직접 법회를 주관하는데 이어, 최근에는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35사단 부안1대대 법당 호국 대원정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11월 26일 호국 대원정사에서 첫 번째 법회가 열렸다.〈사진〉 법회에는 내소사 포교국장 도연 스님,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수연 스님, 원주 진하 스님이 참석했으며 정우영 대대장 등 부대 지휘관과 장병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연 스님은 "그동안 법회를 제대로 열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내소사에서 정기적으로 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물론 장병들의 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영 대대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회를 열지 못했지만 내소사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된 만큼 불자 장병들의 신행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소사는 지역 특성상 해경으로 근무하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경승단 결성과 정기적인 법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인들 함께 부른 평화의 노래

11월 27일 군산 4대 종단 평화합창제

군산지역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음의 메아리 속에 이웃종교를 이해하고, 시의 발전과 종교 간 화합을 기원하는 평화합창제가 11월 27일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다.〈사진〉



군산지역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4대 종단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이번 합창제는 불교 그린비합창단, 개신교 임마누엘합창단, 천주교 오리치오 앙상블, 원불교 원음합창단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동참해 아름다운 화음으로 자비와 사랑을 노래했다.

올해로 6번째 맞이하는 평화합창제에서 원음합창단은 무대에 올라 '백년꽃이 활짝피네', '찔레꽃', '사랑하는 마음'을 선보였다.

평화합창제는 지난 2011년 4대 종단 지도자들이 '군산시종교인연합회'를 구성,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취지 아래 각 종단이 순차적으로 주관해 왔다. 올해는 군산사암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내년에는 천주교가 주관하게 된다.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상대방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해 화합과 소통의 합창제가 되길 바란다"며 "합창제를 통해 국가의 안녕과 민생을 어루만지는 종교인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생명나눔, 자비의 연탄나누기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1월 27일 광주 북구 일원서 저소득층 가정에 '따뜻한 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아이돌그룹 Miss-A멤버 수지, 무애암, 정상기업 등 회원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 600여만 원을 환벽당 및 석곡동 일대 저소득층 50가구에 겨울 난방비로 전달했다.〈사진〉

현지 스님은 "자비의 연탄 나누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알리고, 공동체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 다문화교육 만족도 절반 못 미쳐

(사)착한벗들,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결과

교육 경험자 중 43.5% 만족
내용 미흡·현실 거리감 지적
참여·활동적 프로그램 선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필요



(사)착한벗들이 11월 26일 전주교육대학서 개최한 2016 다문화 정책토론회.

전북지역 다문화가정의 교육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문화교육과 활동에 동참한 이들은 다문화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증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사)착한벗들'이 전북지역 중·고교생과 학부모, 다문화교육 참여교사, 사회활동가 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 나타났다.

(사)착한벗들(대표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은 11월 26일 전주교육대학 교육문화회관에서 '2016 다문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착한벗들의 '2016 전북지역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최준호 전북대 교수가 '전북지역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서재복 전주대 교수, 이중남 마하이주민지원센터 운영위원, 곽효정 공주대 강사가 참여했다. 사회는 이원식 금강대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수용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다문화수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준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교육 및 활동에 실제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지역 내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의사를 보였다.

연구에서 전북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친화적 관계형성에 유리한 매개활동 소재와 주제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문화 관련 기관의 상호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수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다문화교육 경험자 가운데 43.5%만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문화교육의 미흡한 점은 '현실과 거리감(23.4%)', '내용이 다양하지 못함(23.0%)', '내용이 적음(21.6%)', '내용과 활동이 어려움(10.6%)' 순이었다.

향후 다문화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프로그램'이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라음식 체험(26.7%)',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게임 및 스포츠 동아리활동(20.4)',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6.4%)'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이론위주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탈피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착한벗들 대표 회일 스님은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등이냐, 통합을 통한 발전의 동력이 되느냐는 우리의 시선에 달려있다"며 "각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웅 사무국장은 "발전적인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원주민들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이해 증진이 기본 조건"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그동안 다문화가족에만 집중됐던 다문화정책을 원주민들로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착한벗들은 전주시 후원으로 시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해 '음식으로 나누는 세계문화(동아시아음식체험)'와 '문화나눔 독서동아리(결혼이주여성과 일반시민이 함께 하는 독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는 시민 3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젠 자전거로 등교할 수 있어요"

빛고을나눔나무, 네팔서 자전거 100대 후원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지역 학생들을 위해 한국불교계가 행복자전거를 선물했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11월 22~29일 네팔 룸비니와 부트월 지역 인근 학교와 마을을 방문해 행복자전거 100대를 전달했다.〈사진〉 '행복자전거'는 룸비니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매일 2시간 이상 걸어서 학교를 통학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통학용 자전거다.

빛고을나눔나무는 지난 6월부터 모금캠페인과 후원행사, 광주지역 사찰, 불교단체, 개인후원을 통해 마련된 기금 1000만원으로 자전거를 구입했다. 전달식에는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혜공 스님, 문영배 기획팀장,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 등 3인과 쉬리산티나무나 공립학교장, 교직원, 학생 등이 참여했다.

혜공 스님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네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자전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자전거를 받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얼굴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받은 비노드 반다리 군은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아 감사하다. 다만 자전거를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이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네팔 룸비니는 산악지대가 아닌 평지여서 자전거가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보통 노동자가 한 달을 일해야 자전거 한 대 값(10만원 상당)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빛고을나눔나무는 자전거가 다른 선물에 비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들도 함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지원사업을 준비했다. 더구나 자전거는 친구를 태워 함께 등교할 수 있어 나눔의 의미를 배가 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방문단 일행은 자전거 전달 외에도 현지 활동가의 요청으로 부트월 인근에 위치한 아팡아쉬람 고아원과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옷과 신발 등을 선물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불사, 복지시설에 생필품 자비나눔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가 복지시설을 방문해 자비행을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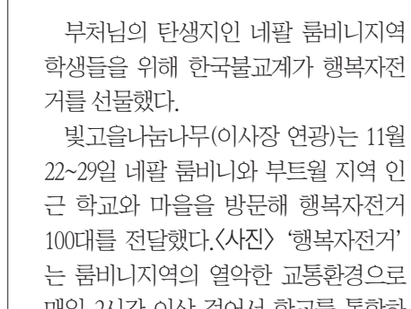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과 신도들은 11월 29일 군산시 소룡동 (사)군산행복의집을 방문해 생활필수품과 간식을 전달했다.〈사진〉 종명 스님은 "오랜 경기침체로 이웃 간 따뜻한 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불사는 1984년 창건한 이래 10여 년 동안 방생법회를 축소하고, 연중 3~4차례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자비의 쌀,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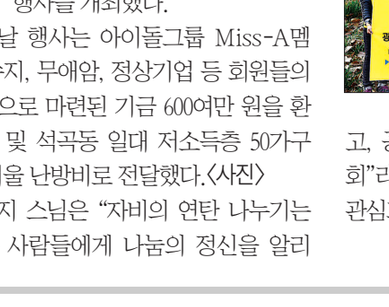
S800 유광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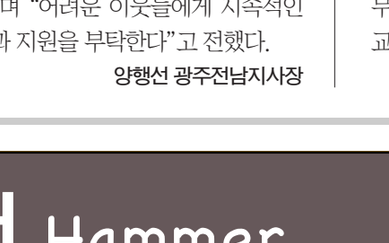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